

#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전령



# 새벽 잡지

2026년 1월호

## 목차

<b>특집 기사</b> .....	<b>1</b>
서약을 새롭게 하라 .....	1
<b>성경 연구</b> .....	<b>23</b>
의로움으로 깨우침.....	23
탕자의 비유.....	28
바리새인과 세리 .....	32
예수님과 베드로 .....	37
<b>기독교 생활과 교리</b> .....	<b>42</b>
고귀한 베뢰아 사람들 .....	42

*성경과 함께 따라가 보세요!*

## 서약을 새롭게 하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면 지체하지 말고 갚으라 이는 너희에게 죄가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23:21**

수 세대에 걸쳐 새해의 시작은 종종 새로운 목표를 세우겠다는 결심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선할 약속을 생각하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백성들 중 많은 이들도 새 생명으로 전념한 삶에 대해 엄숙히 성찰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서 더 높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재헌신하고, 재집중하며, 노력할 것이며, 주님께 드린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서약을 죽음까지도 더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달력의 새 페이지를 넘기는 이 시기는 막을 내리는 한 해 동안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선하심과 자비, 축복을 되돌아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를 되새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래 전 약속하신 왕국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 더욱 확고한 확신과 희망으로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로마서 13:11).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와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 기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를 고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난하고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인류 가족에게 생명과 평화의 축복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다가올 평화 왕국 통치 아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화해를 제공하려는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과 놀라운 목적에 동참할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서원하기

“서원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엄숙히 약속하거나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가 서원할 때, 그것은 형제나 자매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며 하늘 아버지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 50:5; 베드로전서 2:5).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그 서약을 반드시 이행하고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온전한 마음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서원의 중대성과 신실한 이행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할 때 지체하지 말고 이행하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께 한 모든 약속을 지키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전도서 5:4,5

## **살아있는 제물**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권고에 힘입어 활기를 얻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여 너희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바울의 감동적인 권면은 오직 마음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로마서 5:8,9; 베드로전서 1:18,19). 이들은 현재 이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옛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다른 대제사장들과 달리, 그분은 매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죄를 위해, 그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이를 이루셨습니다 .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제한받는 대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후, 하나님은 맹세로 그의 아들을 세우셨고, 그의 아들은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습니다.” 히브리서 7:27,28

사도는 하나님께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고난을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신실하시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심이라." 디모데후서 2:11-13

## 최고의 우선순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함을 말하며, 이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것들을 통해 너희가 죄악된  
욕망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부패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4-7

사도는 이어서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라. 이를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너희에게 풍성히  
마련될 것이라." 베드로후서 1:10,11

## 그리스도를 얻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매우 개인적으로 기록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로 여기노라.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노니 이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요 그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헛된 것으로 여기노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으려 함이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어,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에 이르려 함이라." 빌립보서 3:7-11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지위를 얻기 위해 모든 개인적인 희망과 야망과 영광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다른 모든 관심사와 세상의 이득은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소망과 비교하면 하찮아지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신성한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 사라집니다. 로마서 8:16,17

##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서원한 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천국은 한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 각기 능력에 따라 은을 맡긴 것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마태복음 25:14,15). 오순절 이후로 예수님의 전념한 제자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것, 즉 시간과 영향력,

기회를 사용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충실함으로 나타냅니다. “기쁘게 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줍니다. 가진 것에 비례하여 내고, 없는 것에 비례하여 내지 마십시오 ” 고린도후서 8:12

##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어 말씀하셨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투자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가서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구멍을 파서 주인의 돈을 숨겨 두었다." 마태복음 25:16-18

책임 있는 청지기는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길과 장소를 찾고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와 인도 아래 거룩하게 된 지혜와 분별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우리의 의무는 재능을 최선으로 사용하여 가장 큰 유익을 얻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올바른

판단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달란트를 세상의 욕망과 추구 속에 무심코 묻어버렸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랜 후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그들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하라고 부르셨다. 다섯 달란트를 맡은 종이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였다. '주인님,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투자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하며 말하였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제 네게 더 큰 책임을 맡기리라.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아와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말하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제

네게 더 큰 책임을 맡기리라. 와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 마태복음 25:19-23

비유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종들에게서 보고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부여받은 재능과 능력, 기회를 얼마나 충실히 사용했는지에 대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각 사람이 심판을 받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17). 이에 대해 바울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었든지 그분께 인정받기 위함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니, 각 사람이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 곧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그 행한 대로 그에 따라 보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9,10

## **이득을 내지 못한 종**

비유를 이어서 읽으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나아와 말하되, 주인님, 저는 당신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엄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두었어야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받았을 것이다.” 마태복음 25:24-27

한 달란트를 받은 무익한 종은 다음 구절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그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리라.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에게서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마태복음 25:28,29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특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특권은 자신의 재능과 기회를 유익하게 사용하며 충실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 사탄의 도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헌신의 궁극적인 본보기이십니다. 그는 요한 세례자에게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그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사탄이 육신과 세상과 원수의 유혹으로 그분을 시험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사십 일 밤낮을 금식하시니 심히 주리셨더라." 마태복음 4:1,2

예수님은 사탄의 첫 번째 제안,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말에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3,4; 신명기 8:3).

두 번째 시도로 사탄은 시편 91:11,12- 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듯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사탄이 속임수로 인용한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제한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4:5-7; 신명기 6:16

사탄이 예수님께 한 세 번째 유혹은 그분을 정신적으로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내려다보게 한 것이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엎드려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8-10; 신명기 6:13,14

후에 사도 바울은 사탄을 이 악한 세상의 신으로 규정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4:4).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왕국을 가지실 것임을 인정하셨으나, 그것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왕국은 세상의 왕국이 아니니...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36).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의 통치를 사탄과 나누는 것은 그분에게 죄가 되었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를 아신 주님은 사탄의 제안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 전쟁을 위한 준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그분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계략에 맞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10-12). 사도는 형제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에 대한 더 큰 믿음과 확신, 신뢰를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적에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싸움 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발에는 복음의 평화를 신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완전히 준비될 것이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에베소서 6:13-17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불화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보호받고 저항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비록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벗어 던진 부분이 없는지 항상 주시하겠지만, 공격을 멈출 것이다. 야고보서 4:7; 베드로전서 5:8,9

## **이 혼란한 세상을 마주하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지금 열방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인식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소위 서구 국가들 안에서 정부와 국민의 시각이 거의 모든 국내 및 세계적 문제에 대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른 전선에서는 인공지능(AI)이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파괴적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과 일자리의 점진적 약화 역시 많은 사람들과 가정에 큰 걱정거리입니다. AI가 더욱 널리 사용됨에 따라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책에 대한 합의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근 휴전 및 일부 다른 조항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과 중동 전반의 상황은 여전히 잠재적 분쟁, 공격, 그리고 전면전 재개 가능성의 화약고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국가에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 조직들은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며, 또 다른 공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혼란의 수많은 증거들 중  
이러한 현상들은 분명히 바울의 말씀, "마지막 날에는  
위험한 때가 올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1)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 온전히 입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12

## 매일 상기하는 것

많은 성경 연구자들은 "나의 아침 결심"(My Morning  
Resolve)이라는 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의 도움과 격려의  
훌륭한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려고 힘쓰는 가운데, 이 글이 주는

놀라운 축복의 범위를 계속해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지금과 다가오는 새해 내내 주님께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책임과 특권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글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 나의 아침 결심

내 첫 생각은 이러하리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리리이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은혜를 구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께 내 서원을 갚으리이다." 시편 116:12-14

"내게로 내 거룩한 자들을 모으라. 내게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아" (시편 50:5)라는 신성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나의 서원을 이루고, 육체와 그 욕망을 희생하는 일을 계속하여 나의 구속주와 함께 하늘의 상속권을 얻으리라 결심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단순하고 진실되게 노력할 것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공경하여 내 말이 모든 이에게 기름지고 복되게 하리라.

주님과 진리, 형제들,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이에게 큰 일뿐 아니라 삶의 작은 일들에서도 신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이익이 나의 최고의 복을 위해 신성한 돌보심과 섭리에 의해 다스려짐을 믿으며, 나는 마음의 순결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안, 모든 불만, 모든 낙담을 물리치려 노력할 것이다.

주님의 섭리가 허락하시는 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리니,

“믿음은 무슨 일이 닥쳐도 그분을 굳게 신뢰할 수  
있나니.”

## 의로움으로 깨우침

**핵심 구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요한일서 1:8,9

**선별된 성경 구절:**  
요한일서 1:5-10; 2:1-8

이 서신은 학자들에 의해 서기 9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상당한 영향력을 얻었으며, 신자들은 이방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요소들이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와 자신들의 이교 철학을 결합하려 했고, 많은 이들이 소위 '기독교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거짓으로 지식이라 칭하는 것들에 반대하는 사상"이라고 경고했다. 디모데전서 6:20

요한의 서신은 이러한 철학자들의 파괴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와 사도들의 교리만을 굳게 붙잡고, 이러한 철학적인 가르침들을 거짓으로 여기라고 권면하였다( ). 모든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사도 요한이 "지금도" 세상에 있다고 경고한 "많은 적그리스도들", 즉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의 대표자로 여겨져야 했다(요한일서 2:18).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은 그들을 의로움으로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12-14

이 글을 쓸 당시 사도 요한은 매우 연로하셨다. 그는 경험으로 인해 성품이 매우 온화해져서 믿음에 성숙한 자와 새로 믿은 자 모두에게 매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야 할 중대한 책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와 축복의 충만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들에 만족하며, 마치 "유아"처럼 희생과 섬김 안에서 이 원리들을 완전히 발전시키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3:1). 요한은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을 깨닫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때부터,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었다. (요한일서 1:1). 그와 다른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목격했으며, 부활 후에도 그를 보았고,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알았다. 사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었다. 빌립보서 3:8

그리스도 신앙의 근거가 되는 증언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 그다음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사람이 한 증언은 들을 가치가 없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았기에 우리는 그들의  
확실한 증언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증언은  
참되다.” 요한복음 21:24

## 탕자의 비유

**핵심 구절:**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느니라.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니라."

**누가복음 15:24**

**선별된 성경 구절:**

**누가복음 15:11-24**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몫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모든 소유물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질 무렵 그 땅에 큰 흥년이 들자 그는 굶주리기 시작하였다.” 누가복음 15:11-14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많은 것을 받은 막내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받은 모든 것을 " " 방탕한 생활로 탕진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특권을 버린 그는 죄에 빠지고 " "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1; 로마서 3:23

방탕한 삶을 깨달은 막내아들은 후에 겸손히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는 말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저를 깡패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복음 15:18-20

길 잃은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기쁘게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떠난 동안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웅장하게 보여 주는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린 인류의 종족을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듣는 이들에게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15:21,22

이 비유에서 또 다른 교훈은,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큰아들은 구약의 신실한

종들과 선지자들인 이스라엘을, 작은아들은 신성한 법에 대해 대체로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성향을 보인 나머지 백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은 너희에게 황폐하게 남겨질 것이다.” 마태복음 23:38

그러나 방탕한 아들이 그러하듯,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완전히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이가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리니 그가 이스라엘을 불경건에서 돌이키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니 곧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셨으니 이는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어! 그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 길은 찾기 어려우니라.” 로마서 11:26-33

## 바리새인과 세리

**핵심 구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누가복음 18:14**

**선별된 성경 구절:**

**누가복음 18:9-14**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매우 종교적인 계층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경건했고, 전통을 지키는 데 매우 엄격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들의 내면은 집단적으로 올바르지 못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기에, 그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흰 무덤 같으나 속은 부패로 가득 차 있다고 추가로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27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비슷한 집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매우 까다롭고 꼼꼼하며 꼼꼼하지만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만, 비록 타인보다 본성적으로 덜 타락했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완전한 데는 한참 멀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 다 길을 잃었으며”(로마서 3:10-12).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보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겸손한 더 죄 많은 사람을 더 동정과 긍휼로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스스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강탈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심지어 이 세리처럼 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십일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8:10-12). 자기 의에 찬 바리새인은 여러 면에서 분명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교만했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였다.

비유 속 다른 사람인 세리(세금 징수원)는 낮은 계층에 속해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경멸받던 자였다. 그는 많은 약점 과 죄악된 결점들을 지녔으나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되 하나님이며,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 (누가복음 18:13)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덮으심, 성령의 잉태, 그리고 마음속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사역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할 모든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누가 너를 남과 달리하게 하였느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자랑하느냐?"(고린도전서 4:7)

그러므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모든 사람은 이 점에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 받은 자니라” 에베소서  
2:8-10

## 예수님과 베드로

**핵심 구절:** “예수께서 세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상심하였다. 그는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도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17

**선별된 성경 구절:**

요한복음 21:15-19

본문의 핵심 구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세 번째로 듣는 순간, 베드로의 기억은 가야바의 재판장에서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장면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마태복음 26:69-75).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듯이, 이제 주님께서도 세 번에 걸쳐 그에게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스승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추가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던진 이 세 번의 질문은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도 더 이상의 책망 없이 그를 용서하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은 단순히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주님은 세 번의 부인에 대해 꾸짖지 않으시고, 오직 베드로의 사랑과 헌신의 깊이를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베드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책망할 때는 직접적인 비난보다 암시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의 마음 상태를 묻는 방식으로 매우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들은 또한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어업 사업을 더 사랑하고 섬기려는 성향을 바로잡는 중요한 목적도 수행했다.

주님께서 처음 두 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사용된 그리스어 "아가파오(agapao)"는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상황이나 보상에 상관없이 이기심 없이 희생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필레오(phileo)'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적 사랑, 형제적 애정, 우정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슬퍼했습니다. 그는 스승을 형제적 사랑과 애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아직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인 '아가파오'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에서 가장 칭찬할 만한 특성 중 하나는 인내심이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실수가 지적되자마자 그는 재빨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주님과 자신 사이에 회개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어떤 구름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그는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순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따지기보다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 내 양들을 먹이라"고 요청하신 것은, 이제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가 아닌 주님의 양 떼를 돌보는 일임을 강조하신 것이다(요한복음 21:15-17).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전에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음을 상기시키셨다. 그의 마음이 여전히 충성스럽고 열정적임을 아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새롭게 하셨다(마태복음 4:19).

만일 베드로가 계속해서 어업에 종사하며 주님의 양들을 소홀히 했다면, 그의 행동은 자신의 대답과 모순되었을 것이다. 이는 말로는 사랑이 있었으나, 행동과 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이 경험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속적인 목표와 야망을 뒤로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영으로 태어난 양들, 즉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의 필요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합시다.  
베드로전서 4:10,11

## 고귀한 베뢰아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뢰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고상한 성품을 지녔으니, 그들은 말씀을 매우 열렬히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들 중 많은 이가 믿게 되었으며, 저명한 그리스 여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17:11,12**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성경 연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적절한 때입니다. 성경은 역대 최고의 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광범위한 역사는 지구의 경이로운 창조 작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지상 창조물을 위한 궁극적인

거처로 준비되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의 페이지 안에는 인류 가족에게 그 중요성과 의미를 증명하는 압도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위대한 우주 하나님의 신성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의로운 원칙은 다른 모든 책들과 차별화되며, 현대 사회에서도 진리의 한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다양한 책들 속에서, 구속이라는 주요 주제와 죄와 죽음의 파괴로부터 인류 가족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이는 성경의 신적 영감에 의한 조화와 목적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진리의 다양한 원리들로 향하게 되는데, 각 영감 받은 저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기록했음에도 다른 이들이 쓴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문명의 등불이라 불려 왔습니다. 그 도덕적·윤리적 가르침은 그 어떤 책보다도 인류의 마음을 고귀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거의 고갈되지 않는 영감과 위로의 메시지 원천입니다. 많은 이들이 슬픔의 시기에 성경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삶의 불확실한 장면들을 마주할 힘을 얻었고, 또 어떤 이들은 수많은 교훈 속에서 확신을 찾았습니다.

특히 성경은 기독교의 교과서입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인간 가족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 메시지는 장엄하고 궁극적인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권능과 권세의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로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를 "세대를 위한 계획"이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련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3:11

성경의 놀라운 저자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관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창공이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일을 전파하도다. 날마다 말하며 밤마다 지식을 나타내도다. 소리도 없고 말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들의 소리는 온 땅에 미치고 그들의 말은 땅 끝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해를 장막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 같도다. 해는 하늘 끝에서 떠오르며, 다른 끝까지 그 길을 돌고, 그 온기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법도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도다. 주의 교훈은 바르사 마음에 기쁨을 주시나이다 주의 법도는 빛나사 눈의 빛이 되시나이다 주의 경외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시니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귀하며 꿀보다, 꿀통의 꿀보다 달도다." 시편 19:1-10

## 믿음을 위한 사역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인 개종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믿게 된 형제들이 연구, 봉사, 교제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조직하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섭리로 역사가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중요한 사건들 중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1,2; 누가복음 1:1-4

바울과 다른 이들이 전파한 진리의 지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선포하였으니, 곧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 가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13; 골로새서 1:20; 디도서 2:11). 진리의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위해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신부 일부로서의 지위를 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기쁘게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12:32

충성하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하늘 왕국을 누릴 특권을 얻으며, 땅의 모든 가족에게 복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16-18). 이 영광스러운 계획은 또한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성한 통치 아래 세워질 그 미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의 부활을 마련합니다. 요한복음 5:28,29; 사도행전 24:15; 고린도전서 15:25,26

## 길 위의 갈등

사도들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여행하는 동안, 많은 새로운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양떼 안으로 들어와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백성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편견과 갈등은 종종 발생하여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유대 율법의 익숙한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사이에 마찰이 존재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가르침들은 많은 이들이 처음 듣는 것이었다.

본문 바로 앞 부분에서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탈출하여 데살로니가에서 베뢰아로 향하는 여정을 떠났다(사도행전 17:10). 그들이 도착했을 때, 현지 회당에서 받은 환영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그들은 형제들의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영적 성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 점이 그들을 데살로니가 회중보다 "더 고상한" 존재로 구별해 줌을 주목했다.

## **칭찬할 만한 특성**

이 경우에 사용된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베뢰아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나타낸 마음과 인격의 훌륭한 품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진리의 교리와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더 나은 관점에서 읽으면 고상한 마음가짐에 대한 생각이 확장되며,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도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말씀을 큰 열망으로 받아들였으며, 매일 성경을 살피어 이 일들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고, 저명한 그리스인 남녀들도 다수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11,12). 이처럼 이 형제들이 가진 갈망은 단순히 매일 성경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큰 열망"으로 성경을 신중히 살피고 증명하려는 노력에까지 강조되어 있다.

## **바울과 베드로의 증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라. 선한 것은 붙들라." (데살로니가전서 5:21).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는 그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디모데후서 2:15). 후에 그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네가 배운 것들, 확신한 것들, 누가 가르쳤는지 아는 것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는 거룩한 성경들,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그 가르침을 계속 지켜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4-17

사도 베드로도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좋은 청지기로서 하라. 누구든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10,11

사도 바울과 베드로 등 사도들의 권면과 격려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질 때, 오순절 이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같은 영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진리의 올바른 청지기가 되는 것을 포함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히 지금 이 "현재의 악한 세상"의 마지막 해를 살고 있는 이들 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갈라디아서 1:4

## **이것들을 기억하며**

거의 이천 년 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놀라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항상 상기시키리라. 비록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가르침 받은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지만 말이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너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곧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임박했음을 보이셨으니,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 일들을 기억하도록 힘쓰리라. 베드로후서 1:12-15

사도는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그리스어: 임재]을 너희에게 알릴 때, 교묘히 꾸며낸 우화들을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의 위엄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을 때, 탁월한 영광 가운데서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16-18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인 성령을 통해 진리를 받는다고 더욱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갖습니다. 그들의 기록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아서, 새벽이 밝아오고 그리스도 곧 새벽별이 너희 마음속에 비추실 때까지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성경의 예언이 결코 예언자의 자기 뜻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그 예언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전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19-21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힌 바는,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생명을 바친 자들에게 한 것임을 알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된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니,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 지금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 곧 너희 믿음의 결실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7-9

이 진리의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도 계시되지 않았으니, 옛 선지자들에게도,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아니었다. 그는 설명하였다. "그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열심히 탐구하고 찾았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따를 영광을 미리 증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또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지 찾고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에게 계시된 바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섬긴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니,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이 일들을 자세히 살피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함께 너희에게 주어질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베드로전서 1:10-13

##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초기에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서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처음 전해진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에게는 변하심이 없으시며 변덕이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17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며,  
성령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가  
자기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듣는 데는 빠르고 말하는 데는 더디하며 노하는 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18,19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섭리에 관해 야고보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순수하고 거룩하다는 점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에 평화로우며 온유하고, 쉽게 설득되며,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위선도 없다. 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자들에게 평안 가운데서 심겨진다.” 야고보서 3:17,18

앞서 언급한 구절들은 하늘의 지혜가 신성한 성품과 조화를 이루며 작용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영이 평화로우나, 사도는 그 중요성을 순결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참된 지혜는 거룩함과 순결과 일치할 때에만 평화롭습니다. 그것은 오직 거룩한 것과만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순결을 따르며,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평화롭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자비로 가득 차" 기뻐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비추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 진리의 빛

선지자 이사야는 빛과 생명 및 진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성한 목적을 제시하며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인도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그들을 이끌리라. 내가 그들 앞에 어둠을 빛으로, 굵은 것을 곧게 하리라. 내가 이 일을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니 그 의가 빛나는 광채 같이 나타나고 그 구원이 타오르는 등불 같이 될 때까지." 이사야 42:16; 62:1

다른 많은 성경 구절들도 빛이라는 특별한 선물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생명은 주께로부터 나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기쁜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이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가운데서 행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과 같아서 점점 더해 완전한 날에 이르느니라." 시편 36:9; 89:15; 119:105; 잠언 4:18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지침과 영적 관점으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감추거나 등잔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눈은 네 몸의 등불이니라 네 눈이 맑으면 온 몸이 밝고, 그러나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네가 가진 빛이 실은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라. 네가 빛으로 가득 차 어두운 구석이 없다면, 네 온 삶이 마치 투광등이 너를 비추듯 빛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1:33-36

##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길을 걷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표징이다. 예수님 탄생 수세기 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주의 계명이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니 나를 살리시려고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밤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19:143-148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멸시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서 제철에 열매를 맺으며 앞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편 1:1-3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영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합니다.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들어가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잡으라.” 히브리서 4:12-14

##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으며, 자신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분의 겸손한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내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대로 심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 뜻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또 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요한복음 5:30-32).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으며 그분의 사역을 위한 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너희는 세례 요한을 조사하러 사람을 보냈고, 그가 나에게 대해 한 증언은 참된 것이었다. 물론 나는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너희가 구원받기를 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고 빛나는 등불 같았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말씀에 열광했다. 그러나 나에게에는 요한보다 더 큰 증인이 있으니, 곧 나의 가르침과 나의

기적들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증명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생각하여 성경을 연구하나니 바로 이 성경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33-37,39

## 베뢰아 사람들의 유산

사도 바울이 베뢰아 성도들을 성경에 대해 고상한 마음을 가진 학자라고 평가한 것은 주님의 모든 백성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긍정적인 교훈이다. 이 형제들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으며, 그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유일한 진정한 근원임을 강조했다. 그들은 믿는 바의 최종적 증거로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인식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 본문에서 다른 번역본을 인용하면, 베뢰아 형제들의 유산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나은 태도를 지녔고 더 고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경향과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환영했으며, 매일 성경을 살펴보고 조사하여 이 일들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 중에는 저명한 헬라인들도 적지 않게 있었으며,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17:11,12